

신충일의 건주기정도기에 대하여: 최근발견의 청초사료

이인영 진단학보 (10), 1939.6, 142-152(같은 호에 원문수록(159-186))

<건주기정도기에 대하여>

- * 건주기정도기 -> 신충일의 1595년 건주여진 방문기록과 지도
- * 서계라고 해서 선조실록 권71에 수록되어 있으나 지도가 있다는 기록만 있고 실제 지도는 없었음
- * 그런데 진단학회가 소장한 성해응(연경재 성해응)의 연경재전서(정조시대 성해응의 편저) 수록 신충일 보고서의 요약본에 실록에 없는 지도가 있어서 이나바 이와기치가 “신충일서계와 지도”라는 논문을 청구학총 29호에 발표한 바 있음
- * 그러다가 1939년 8월 하순 신충일 자신의 기록 한 부가 청남 청양군의 신충일 후손의 집에서 발견됨 -> 신충일 자필의 초본으로 추정됨
- * 경성(한양인데 이인영의 논문에 경성으로 표기) -> 강계 -> 만포진 -> 압록강 건너 누르하치 성까지의 기록 + 이때까지 산천, 지명 + 누르하치성 부락의 다소, 군비의 유무를 기입한 지도를 붙임 + 누르하치 성내 중앙의 누르하치 집의 약도와 외성내의 동생 수르하치집의 약도, 그리고 자신의 97개조 기사를 첨부 + 5촌 당숙 신숙의 발문
- * 그렇다면 선조실록과 연경재전서에 있는 것과 이번에 발견된 신충일의 원본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1. 누르하치와 수르하치집의 약도가 있다 -> 선조실록과 연경재전서에도 보이지 않는 신사료임; 선조실록과 연경재전서에 있는 것으로 신사료에 없는 것은 없다
 2. 신숙의 발문 전문이 신사료에만 있다
- * 신숙의 발문에 의하면 보고서 “두 통을 만들어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스스로 소장”하였다는 것이 밝혀짐
- * 또한 가필도 교정도 있고, 해서체가 아니라 초서체여서 보고서 초안으로 짐작되고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여겨짐
- * 그럼 연경재 성해응의 기정도기에는 어떻게 요약된 형태로 건주기정도기가 수록된 것인가? -> 정조시대에 왕명에 따라서 존주휘찬을 만들었고, 이는 인조대 병자, 정묘호란 당시 강화에 반대한 사람들의 자료를 만든 것인데, 이를 수집하는데 참여한 성대중의 아들 연경재 성해응이 규장감 검서관으로 참여하여 북방관계에 관한 자료를 보다가 이 건주기정도기의 일부를 게재한 것으로 보임

<신충일에 관하여>

* 신충일은 선조때 무과에 급제하여 부총관까지 이른 인물이며 건주여진을 방문할 당시 벼슬은 한성부 남부주부였음 -> 그후 함흥판관에까지 이름

* 나중에 파직되는데(그 후 또 복직됨) 그 이유 중 하나는 누르하치를 만났을 때 그가 준 옷을 입고 5배3고두의 예를 행했다는 것임

-> 사실여부는 알 수 없고 당쟁에서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파직후 경성에 있을 때 당숙에게 발문을 부탁한 것으로 보임 -> 이후 복직됨 -> 무인으로서는 상당한 벼슬을 하면서 생을 마침

<건주여진 누르하치의 조선접촉>

* 임진왜란 당시 건주위도독 누르하치는 원병을 자원한 바 있음

* 누르하치는 또한 만포첨사에게 서계(조선에서 포획한 사람과 가축을 돌려보내면서 양국이 잘 지내자는 취지)를 제출한 바도 있음

* 세조 이후 명의 간섭으로 건주여진과의 교류가 금지되면서 조선은 만포진 등에서 구두대화 와 물물교환은 할 수 있었으나 **문서를 통한 교류는 할 수 없었음**

* 그러나 누르하치는 문서교환을 요구하고 여진인 90인을 만포첨사에게 보내어 교류를 요청하고 답신을 요청한 것 -> 조선의 태도와 처지를 엿보기 위함으로 보임

* 비슷한 시기에 여진인 십여명이 평안도 위원군에서 인삼을 캐다가 수인이 포살되어 문제가 됨 -> 여진인의 침공의 풍문이 돌기 시작함

* 임란중의 조선은 북방에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당시 평양에 있던 (명나라) 유격 호대수에게 청해 휘하 부하를 누르하치에게 보내어 선유하게 하고자 함

-> **명으로 하여금 여진과 조선이 모두 명의 조공국이니 명의 허락 없이는 사사로이 양국이 교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선유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는 취지임**

<여희원의 1차선유>

* 호대수는 휘하의 여희원을 만포로 보냄 -> 여희원은 호대수의 명을 받들어 만포로 떠나 조선인 여진통사 하세국에게 호대수에게서 전달받은 선유문을 주어 누르하치에게 보냄

* 이때 누르하치는 부장 마신 등을 하세국과 함께 만포로 보내어 다시 만포첨사에게 서계를 전달함; 그리고 마신은 만포에서 직접 여희원의 선유도 들음 -> 이 과정이 여희원의 제1차 선유임

* 이 때 여희원은 1596년 정월에 자신이 재물과 함께 직접 누르하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함

<여희원의 2차 선유 전 신충일의 독자 파견결정>

* 이때 조정은 여희원과 함께 1596년 함께 방문할 사람으로 통사 하세국뿐만 아니라 무인으로 남부주사 신충일도 보내어 정담의 역할을 맡김

* 그러나 비변사가 1595년 11월 23일 가능한 빨리 만포침사의 답서를 보내는 것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그 곳 정세를 정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포고 파견을 요청하는 계를 올림
-> 신충일은 여희원과는 별도로 즉시 파견되어 만포로 감

* 즉 신충일의 역할은 표면상 만포침사의 답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실은 누르하치 세력에 대한 정담에 있었음

* 1595년 12월 23일 만포출발 -> 28일 누르하치성 도착 -> 1주일 거주 -> 만포 도착 -> 1596년 1월 하순 경성귀환

<여희원의 2차선유>

* 여희원은 신충일 도착 후인 1596년 2월 2차선유를 떠남; 조선측 수행원은 역관 이억례, 만포침사군관 안충성 등

<신충일은 여희원과 동행한 적이 없음>

* 즉 신충일은 한 번도 여희원과 동행한 적이 없음
-> 그러나 연경재전서, 조선사편수회편 조선사제4편 제10권, 이나바 이와기치 등도 청조실록의 기록(명관원 2인, 조선관원 2인이 누르하치성에 파견되었다는 점을 기록)을 인용하여 조선인 1인은 신충일이며 그가 여희원과 동행했다고 주장하고 신충일이 여희원과 동행한 것을 도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이나바) -> 이인영이 볼 때 이는 명백한 오류임

<신충일의 내왕 경로>

* 만포진 -> 압록강 -> 집안현 -> 판차령 -> 신개하 상류 -> 산개하 하류 -> 혼하 지류 부이하 하류 -> 현재 소자하 유역의 흥경 노성 부근 누르하치성 도착

* 누르하치성은 1587년 축성한 호란합달(혁도아랍) 동남부의 무명성(비아랍) -> 이곳에 관한 만주기록은 성경통지에 약간일 뿐 -> 신충일의 건주기정도기가 누르하치성과 환경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임 -> 사료적 가치가 높음-> 청건국 이전의 생활상에 대한 중요한 자료: 누르하치와 수르하치의 가옥과 주변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 => 97개조의 기록

* 선조는 신충일의 보고서를 보고 “누루하치가 매우 우려된다. 예전에 호로여서 물풀을 따라서 거했지만 이제 진과 성을 쌓아 구비하지 않은 바가 없어 몽고의 삼위 역시 귀순하고.... 반드시 큰 우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함 ->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서애 유성룡에게도 신충일의 보고서를 보임

* 그러나 적극적인 방비책은 없었음

* 그러나 광해군대에 이르러 여진을 경계하고자 광해군이 만포첨사 정충신의 건주정찰 등의 선례로 남겨짐

<후기>

* 광장동 일대에서 신충일의 묘로 추정되는 곳을 알아내고 참배함

16세기 말~17세기 초 朝鮮과 建州女眞의 배후 교섭과 申忠一의 역할

장정수, 한국인물사연구, 2016(25), 133-183.

I. 머리말

* 1595년 12월, 조선은 漢城府 南部 主簿 申忠一(1554~1622)에게 ‘滿浦 僉使 軍官’이라는 직함을 주어 建州女眞으로 파견함(만포첨사 유림의 군관)

* 7일간 건주여진의 중심인 퍼알라(비아랍)에 머문후 建州紀程圖記를 작성함

* 자신이 경유한 지역의 산천 형세와 그 특징, 여진 부락의 분포 상황 등을 담은 그림과 함께 누르하치 등과의 교섭 내용과 답장(回帖)을 포함한 장문의 글로 구성됨

* 조선은 국초부터 여진에 대한 초무를 금지하는 명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회유와 강경정책을 써가면서 여진과 교류함

* 성해응은 이와 같은 사실은 배제하고 1595년을 양측 관계수립의 출발점으로 이해 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 1595년 접촉의 중요성을 시사함

-> 이러한 언급은 누르하치의 興起로 인한 여진족의 통합을 계기로 양측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만 학자 陳捷先은 신충일의 파견을 조선과 만주(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교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 왜 이 시기 누르하치는 조선과 교섭하고자 하였는가? 이렇게 조선에 대한 명의 지배력이 압도적이었던 임란시기 선유를 금지한 명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어떻게 가능하였나? 명나라 여희원이 호대수의 선유문을 들고 여진을 방문한 것과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왜 신충일이 건주여진에 파견되었나? 파견 이후 조선과 여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해 볼 필요가 있음

* 선유를 금지하는 명의 금법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배후교섭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함

* 이 글의 구성

- 1장에서는 임진왜란 시기 누르하치가 조선과의 교섭을 요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규명

- 2장에서는 건주여진의 침입 소식에 대해 조선이 어떠한 외교적 대응을 강구하였고, 신충일의 파견은 그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
- 3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누르하치가 조선에 발송한 '서신'을 중심으로 조선과 건주여진 사이에서 전개된 교섭 양상을 정리하고, 신충일의 역할을 조명 -> 이를 통해 1595년 신충일의 파견을 시작으로 건주여진에 대한 조선의 배후 교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누르하치의 조선인 쇄환 배경과 그 목적

- * 1595년 봄, 건주여진의 누르하치가 조선에 人物을 쇄환하고 서신을 보냈음
- * 당시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계는 1467년 '성화 3년의 역' 이래로 사실상 단절; 평안도 滿浦鎭에서 이루어진 간헐적인 교섭이 전개되고 있을 뿐임
- * 조선은 藩國 사이의 '私交'를 묵인하지 않는 명의 禁法을 준수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으나, 누르하치가 피로된 인물들을 송환하는 호의를 베풀 이상 이를 무조건적으로 거절하기도 곤란한 입장에 처함
- * 왜 누르하치는 이 시점에 조선과 교류하고자 하였나?
- * 1590년대 초반 건주여진의 누르하치가 여진족 전체를 통합해 나가면서 장백산 일대로 진출
- * 누르하치가 수차례에 걸쳐 조선인을 송환한 것은 교섭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편
- * “그가 조선과의 관계 수립을 원했던 것은 월경문제를 조율하여 채삼을 보다 자유롭게 행하고 또 開市를 통해 이득을 보는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여진사회 내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 “요컨대, 1595년 누르하치의 조선인 송환은 조선과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
->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압록강 일대로 영향력을 확대한 누르하치는 여진인의 대표자로 자처하면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조선과의 변경 문제의 해결을 모색함

III. 월경 채삼 사건의 발생과 申忠一의 파견

- * 조선은 명의 ‘禁法’을 지킨다는 입장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고자 함
- * 그러나 건주여진의 세력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임진왜란이 한창인 시기에 또 다른 외교적인 문제의 발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음
- * 조선 조정은 누르하치의 인물 송환에 대한 보상을 하되, 서신의 왕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口頭로 알리는 방법을 택함
- * 그런데 1595년 7월 누르하치가 재차 조선인을 송환하고 서신을 보내오자 비변사에 서는 만포 첨사의 명의로 답서를 보낼 것을 건의하게 됨
- * 그 대신 답서 안에는 감사의 표시와 함께 명의 금법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신 왕래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큼은 분명히 함
- * 동시에 요동도사에 자문을 보내어 전후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명의 중재를 받기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는 ‘私交’의 혐의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안전 장치였다
- * 이 때 월경채삼사건이 발생함
 - 채삼을 위해서 들어온 여진인 수십인이 평안도 위원에서 살해됨 -> 조선은 요동도사에게 자문을 보내고(포정 양호가 접수) 유격 호대수에게 건주여진 선유부탁(호대수는 여희원을 두 차례 건주여진에 파견)
- * 이후 부총관 마동 등에게도 직접 자문을 보내어 조치를 부탁함 -> 여진의 보복조치를 두려워했기 때문임
- * 이와 같이 다각도로 조선을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명에 도움을 청함
- * 조선은 사교를 금한 명의 금법에도 불구하고 요동에 알리지 않고 이 시절 선유와 함께 독자적으로 신충일을 건주여진에 파견함 -> “그렇다면 조선은 이러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독자적인 사절을 파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신충일의 파견은 위원에서 ‘월경채삼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결정된 만포 첨사의 답서 발송과 관련되어 있다.”
- * 호대수가 2차 방문할 여희원을 기다려 답서를 적자고 했으나 조선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독자파견을 준비해 두었고, 이를 위해서 ‘영리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가 아마도 신충일이었던 것으로 보임(이인영의 글을 보면 여희원 2차 방문 이전에 신충일 먼저 누르하치를 만남)

* 너희가 오면 “연향을 베풀고 중국관원을 통해서 준비한 물건을 준다”는 취지의 답서를 보내려고 함

* 건주여진의 지속적인 교섭요구에 조선이 응한 것으로 보이며, 교섭과정초기에는 명에 알리지 않은 듯함 -> 조선이 교섭에 응하여 신충일을 파견하기로 한 근본적인 원인은 건주여진의 분노로 인해서 전쟁을 겪지 않으려는 의도가 큼

* 미리 뽑아 둔 여진인 향도 童女乙古와 함께 파견하고자 함 -> 명의 답변과 대응이 늦으니 하세국과 신충일을 먼저 보내자는 의견을 비변사가 강하게 주장함

* 또한 1595년 11월 평안병사 邊應奎의 장계 -> 건주여진이 通書를 주장하는데 속히 응대하지 않으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

* 1595년 12월 신충일

-1595년 12월 15일에는 평안도 강계부에 도착

- 21일에는 만포진에 들어가 嚮導로 나온 여진인 童女乙古 등과 합류

- 22일에 출발하여 28일에 누르하치의 근거지인 피알라에 도착

- 그는 이곳에서 7일 간 머물며 건주여진과 월경문제를 논의하고 만포 첨사(柳濂:유렴)의 답서를 전달

- 1596년 1월 5일에 建州左衛 의 印信이 찍힌 누르하치의回帖을 가지고 귀환

* 누르하치 답신의 내용 -> 누르하치는 만포진으로 보낸 회첩에서 스스로를 ‘女直國 建州衛管束夷人之主’라고 칭하 -> 자신이 여진의 주인임을 천명함

* 주내용은 세가지

1. 자신이 조선인을 쇄환해주었던 일을 하나의 예로 삼아 앞으로는 서로의 범월인을 죽이지 말고 송환해주는 것을 ‘兩家이 律’로 삼자

2. 조선이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변경에 군사를 배치하여 스스로 감독하겠다

3. 명 관원이 자신을 해하려하므로 유사시에 자신을 위해 우호적인 답변을 해달라

* 지속적으로 문서교섭하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됨

* 조선은 신충일의 파견을, 여진은 접수를 명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듯함(필자는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인상)

* 1596년 2월 조선에서는 통사 하세국을 비롯하여 만포 첨사 군관 安忠誠, 강계 부사 군관 白雄傑등이 여희원과 함께 건주여진을 재차 방문함(이인영에 의하면 여희원의 2차 선유)

* 신충일의 방문은 조선과 여진 간의 배후교섭으로 보아야 함

IV. 임진왜란 이후의 교섭과 신충일의 역할

* 이후 1600년과 1605년(홀라운의 동관진 함락시), 1607년(건주여진의 홀라운 격파) 등 세 차례에 걸쳐 누르하치가 조선에 다시 서신을 보낸 사실이 확인됨

* 이후 누르하치는 점점 세력을 강화하면서 조선과의 대화를 압박하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하면서부터는 명과의 일전을 염두에 둔 듯이, 명이 자신의 부와 조부를 죽인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조선의 양해를 구한다는 서신을 보내 옴(명에 대한 입장의 현저한 변화) + 협박 <- 1617년 후금 사신의 서한

* 조선과 후금의 교섭은 후금이 명과 전쟁을 시작한 1618년 이후에도 계속됨 -> 이제 누르하치는 ‘朝鮮國王開拆’이라는 거만한 문구가 있는 서신을 5월과 10월에 각각 만포와 회령으로 보냈으며, 이제 조선국왕과 직접 대화를 원함 + 교섭범위를 넓히자고 요구

* 신충일은 이후 1616년부터 1621년까지 회령부사로 재임함

* 1619년 심하(강홍립의 사르후전투) 전투 이후 조선과 후금의 관계는 급변하여 마침내 평안도 관찰사가 만포 첨사를 대신하여 교섭을 담당하게 되며, 이후 여진에 대한 문서의 호칭은 귀국으로 바뀜